

겨울철 농기계 관리, 영농철 농기계 성능 좌우

농진청, 농한기 관리 소홀 농기계 수명 짧아지고 고장 나기 쉬워... 기종별 위의 사항 안내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은 겨울철 농기계를 보관할 때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해주어야 이듬해 영농철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며, 기종별 주의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농기계에 묻은 흙이나 먼지 등을 깨끗이 닦은 후 녹슬거나 부식되기 쉬운 부위에는 오일, 그리스 등을 바른다.

나사가 잠겼는지 확인하고 클러치, 레버, 벨트는 풀어 건조한 실내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실내 보관이 어려울 땐 햇빛, 비, 눈 등을 피할 수 있도록 덮개로 잘 덮어 관리에 보관한다.

라디에이터 냉각수는 얼지 않도록 부동액을 섞어 적정량을 채워 넣는다. 냉각수를 빼서 보관하려면 배수 마개



를 열어 놓은 채 라디에이터 뚜껑에 '냉각수 없음'이라고 적어 붙여둔다.

경유 이용 농기계는 연료통에 습기가 차거나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료를 가득 채워 놓고, 휘발유 이용 농기계는 가스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연료통을 완전히 비워 보관한다.

배터리는 농기계에서 분리해 직사광

선이 닿지 않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배선을 분리할 때는 마이너스(-) 단자를 먼저하고, 연결할 때는 플러스(+) 단자부터 연결한다. 농기계에 부착한 상태로 보관할 때는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방전 예방을 위해 마이너스 단자를 분리해 놓는다.

타이어는 표준 공기압보다 조금 더 넣고 주차브레이크를 걸어둔 상태로 타이어 앞뒤 고임목을 놓아 비위가 땅에 닿지 않게 한다.

탈채식이나 견인식 작업기에 기계 안전용 스탠드가 부착돼 있다면 반드시 받쳐서 보관한다.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 기종마다 보관 시 주의 사항이 다르므로, 이를 숙지한 뒤 농기계를 보관해야 한다.

자세한 농기계 보관과 관리 요령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nongsarogakr) '농업자재→농기계→계절별 관리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 화순에서 벼농사를 짓는 유홍렬 농업인은 "농한기 관리 소홀로 농기계가 고장 나 제때 작업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라며, "그 뒤로 정기 보관 전 농기계 점검을 필수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안전재해예방공학과 이충근 과장은 "농기계 관리에 소홀하면 농기계 수명은 짧아지고 자주 고장이 나게 된다"라며 "농기계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새만금개발공사는 2일 '희망2025나눔캠페인' 출범식에 1호 기부자인 새만금 희망태양광의 주주 대표로 참석해 성금 3억6,000만원을 기탁했다.

사랑의 열매에 3억6천만원 성금기탁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희망태양광 주주 대표로 참석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는 2일 '희망2025나눔캠페인' 출범식에 1호 기부자인 (주)새만금희망태양광의 주주 대표로 참석해 성금 3억6,000만원을 기탁했다.

'희망2025나눔캠페인'은 사랑의 열매에서 진행, 연말 연시 집중 모금캠페인으로 '기부로 나눔 가치 있게, 기부로 세상을 가치있게'라는 슬로건 아래 62일간 118억1,000만원 모금을 목표로 진행한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자인 (주)새만금희망태양광과 새만금개발공사를 비롯한 주주들은 발전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나눔 문화 및 친환경에너지 확산에 기여하고자 이번 기탁을 결정하였다.

해당 성금은 전북 사랑의열매 1

호 기부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으로 3억원은 어려운 이웃의 출산육아 지원을 위해 사용되며, 6,000만원은 장애인 교통약자 차량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새만금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은 이번 기탁 외에 별도로 3억원의 장학금을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기탁하여 총 6억6,000만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새만금사업과 전북 도민이 상생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캠페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응원의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농협 여성책임자 모임 등 아동복지시설서 봉사활동 진행

전북농협 여성책임자 모임인 'NH아리아'와 전북 농협 지역사회공헌단(단장 박병철 노조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삼성유년빌'을 찾아 사랑과 온정을 나누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전북농협 여성책임자모임 NH아리아 (회원11명)와 농협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결성된 봉사단체 'NH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이 협력하여 준비했다. 두 단체는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힘을 모았다.

행사 당일에는 약 600만원 상당의 쌀, 가공식품과 농·축산물을 전달하며, 아이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물품도 함께 지원했다. 또한, 초·중·고등학생들과 함께 비즈 키링 만들기, 레크리에이션 등 참여형 활동을 진행해 아이들이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소정의 시간을 마련했다.

NH아리아 회장 정미경은 "지역사회의 온정이 필요한 곳을 찾아 지속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중기청, "따뜻한 소비로 행복을 나눴어요"

'12월 동행축제' 진행... 28일까지 온·오프라인

소상공인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외된 이웃과 나눔의 정을 나누기 위한 '12월 동행축제'가 개최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태용, 이하 전북중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외된 이웃과 나눔의 정을 나누기 위한 '12월 동행축제'가 1일부터 28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개최된다고 밝혔다.

12월 동행축제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따뜻한 연말이 되도록 나눔을 주제로 한 할인이벤트 등 다채로운 이벤트로 추진된다.

우선 쿠팡 11번가, 롯데온 등 주요 민간 온라인 쇼핑몰과 정부·지자체 운영 공공쇼핑몰 등 190여 개 채널에

서 할인 쿠폰 발행(최대 50% 할인), 타임 특가, 특별할인전을, 공영홈쇼핑과 행복한백화점에는 생활·주방용품, 겨울철 방한의류, 스포츠용품, 식품 등 오프라인 겨울상품 특가 할인전(50~80% 할인)을 진행한다.

또한, 동행축제 누리집(k-shopping.festa.org)에서 지난 5월과 9월 축제에 참여했던 600개 사 제품 중 소비자들과 전문가가 선정한 100개 사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집중 할인하고, 판매 수익과 물품을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는 나눔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우리 지역에서도 소상공인 물품 판매전 및 나눔행사와 연계하여 12월 동행축제가 진행된다.

먼저, 군산에서 군산나눔 동행축제

(2~28)가 구도심삼광 일원에서 개최, 동행축제 기간에 다문화가족, 해외유학생 등을 대상 김장단고기 체험 및 나눔행사를 추진하여 이웃과 소통·나누는 행복을 느끼게 할 예정이다.

이어서 부안군에서는 지역 상권을 지원하고, 판매된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방식의 '작한 소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나드리 쇼핑몰과 연계한 지역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9~13일)를 통해 지역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구역 소상공인 제품에 프로모션을 더해 저렴하게 제품을 제공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안태용 청장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면서도 사회적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이번 동행축제의 가장 큰 목표"라고 전했다.

/김욱기 기자

LX공사, '공간정보 응용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 과정' 발표회·수료식 개최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사장 어명소) 국토정보교육원(원장 박신중)에서 운영하는 공간정보아카데미가 지난달 29일 '공간정보 응용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 과정' 최종 프로젝트 발표회와 수료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이하는 '공간정보 응용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 과정'은 취업준비생 31명을 대상으로 5개월간 공간정보 융·복합 프로그래밍 교육 후 공간정보 관련 기업으로 취업을 연계하는 교육과정이다.

이날 교육생들은 교육과정 동안 배



운 공간정보 프로그래밍 기술과 실습 경험을 활용하여 신규 사업 아이템을 직접 만들고 시연도 진행했다.

이날 발표 프로젝트는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부동산 시스템 △플랫폼

전 방지 화물운송 관제시스템 △불법주차 신고 및 공유 주차구역 예약 플랫폼 △등산 위험요소 안내를 통한 사고예방 및 대응 플랫폼 △농부·소비자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계약형 농장 플랫폼 등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구현되었다.

또한 해당 프로젝트는 공간정보 기업 관계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반영성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으며 이후 심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상 및 LX공사 사장상 등 8개 부문에 대해 수상을 진행했다.

/김욱기 기자

전북상협, 국가균형발전 촉진 비수도권상협과 협약

전북상공회의소의협의회(회장 김정태)는 2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비수도권상공회의소의협의회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전북상공회의소의협의회 김정태 회장을 비롯해 전남상협 이흥우 회장, 경남상협 최재호 회장, 경북상협 윤재호 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 주요내용은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대정부 건의와 후속 조치에 대한 공동 대응 △광역자치단체 내 경제현안에 대해 상호 협력 △연구공동체 발주, 대안 마련, 국회토론회 개최 등 기타 국가균형발전 촉진과 관련한 제반 활동 공동 추진 등이다.

김정태 회장은 "전북은 올해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여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였지만, 전북도민 중 2·3세대 인구가 23.8%로 고령화 진행속도가 전국 평균치 이상이며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났다. 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지역경제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협약이 각 상협 간의 협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협약 체결 후에는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비수도권상공회의소의협의회 추진 및 출범식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욱기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